사치 삼반단

포스텐네트웍스 개발 담당 부사장

그동안 코어 스위치와 액세스 스위치 제품군만을 보유하고 있던 포스텐네트웍스는 최근 C3000이라는 고성능 고밀도 에지 스위치를 선보이면서 데이터센터 등 엔터프라이즈 중심의 10GbE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이번에 제품 발표를 위해 한국을 방문한 포스텐네트웍스의 개발담당 부사장인 사치 삼반단을 만나 새로운 제품과 포스텐네트웍스의 전략에 대해 들어봤다.

포스텐, 엔드 투 엔드 10GbE로 시장 공략 나선다

10GbE 시장이 이제 본격적인 성장세에 접어들고 있다는 평가다. 10GbE 시장을 견인하고 있는 대표적인 분야는 어디인가.

낮은 컴퓨팅 자원 활용과 네트워킹 운영의 복잡성으로 TCO에 민감한 데이터센터 시장이다. 데이터센터는 전세계적으로 동일하게 확장되고 있으며, 네트워크의 모든 수요가 데이터센터로 몰리고 있다. 데이터센터 서비스에서는 고밀도 포트, 라우터 스위칭, 전원 관리, VoIP 기능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 한국 시장 역시 최근 대기업 계열 IT 서비스 업체들이 데이터센터 건립과 확장에 적극 나서고 있어 향후 데이터센터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오는 2008년에 데이터센터 규모가 현재 2배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한 C300 시리즈는 포스텐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디스트리뷰션 스위치인 C300의 출시를 통해 포스텐은 코어 스위치인 E-시리즈, 에지 스위치인 S-시리즈와 함께 엔드 투 엔드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타깃 시장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 C300은 최대 1.53Tbps의 성능에 폭넓은 PoE 지원과 전원 관리 능력, 그리고 슬롯당 96포트를 지원함으로써 총 768포트의 기가비트 이더넷을 지원하는 라인카드와 슬롯당 8포트의 10기가비트 이더넷 라인카드를 준비하고 있다. 이같은 뛰어난 성능과 높은 포트 밀도, 그리고 경쟁력 있는 가격을 통해 시장에서 빠르게 자리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 전략에 대한 소개를 부탁한다.

C300 출시를 통해 엔터프라이즈 시장에 본격 진출할 계획이다. 엔터프라이즈 시장은 상대적으로 성능보다는 가격 경쟁이 치열한 편이다. 포스텐은 C300을 통해 캐리어급 성능과 안정성, 그리고 경쟁력있는 가격을 통해 엔터프라이즈 시장을 공략할 교두보를 마련한 것이다. 또한 고객사를 대상으로 한 1:1 세미나를 추진하고 기존의 유통 채널을 확대와 각종 프로모션을 통한 보다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포스텐은 한국 시장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한국은 매우 역동적인 시장이다. IT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으며, 신규 솔루션과 기술의 도입이 매우 빠르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미 한국은 100Mbps급 속도를 제공하는 브로드밴드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고 있으며, 이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준비가 착실하게 이뤄지고 있는 시장이다. 이같은 가입자망의 고도화는 곧 테라비트급 처리 성능을 요구하는 대용량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것은 바로 포스텐에게 기회이기 때문에 항상 한국 시장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신 통 윤 기 자